

실업계 고교 의상과 교육에 대한 연구 — 5차 교육 과정과 6차 교육 과정 비교 —

이 화 영* · 신 혜 원**

신경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 Study on the Education of the Department of clothing in Vocational High schools

Lee, Hwa-Young* · Shin, Hye-Won**

*Shin Kyung Vocational High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opinions on the education of the dept. of clothing in vocational high schools. The respondents were students who were respectively trained by the 5th and 6th educational curriculums.

The results were that the students of the 6th educational curriculums reflected more their aptitudes in choosing the department of clothing than the students of the 5th educational curriculums. Because of the lack of teaching materials and teachers' ability to lead the class, the satisfaction in education of the dept. of clothing was below the average. And students wanted the increase of practice hours and to learn the special subjects. In addition, they felt the strong need for the field training. From the survey, it seemed that they were regarding the education of the dept. of clothing in vocational high schools as a job education related to their speciality. But after graduation, almost all students wanted to go to the college.

I. 서 론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개화기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가사, 재봉, 수예 등을 가르쳐 1인1기를 습득하게

함을 계기로 하여(교육과정연구처, 1990), 1958년에는 가정과 교육이 직업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전문 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계 고등학교가 설립(문교부령 제76호)되었다. 이후 1971년 가사 실업계 고등학교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현재는 대구,

울산, 인천 3곳의 생활과학고등학교와 기존의 상업계열 고등학교 중 실업계열로 명칭을 변경한 일부 학교에서 가사실업계의 성격을 가진 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전의 농·공·상업계열 등에 치중했던 실업교육이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전문 인력의 부족 현상을 가져오게 되므로(서울경제신문, 1993), 실업계 고교의 체제를 개편하여 계속되는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산업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www.cned.or.kr).

최근 인구 구조, 산업 구조, 생활 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발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직업 세계의 다양화와 전문화 추세는 미래 사회에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과를 갖춘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 및 확충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김신복, 1995).

특히 국민들의 생활양식의 변화, 경제적 여유, 맞벌이 부부의 증대, 가사 노동의 사회화 등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다양한 산업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1990년대 이후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가사·실업 분야의 서비스 요구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을 요구함으로써 가사·실업계열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가사 실업계열 교육의 계속적인 변화와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처되는 연구로는 김영주의 [실업 가정·체계 및 직업 과정 개선 연구](1990), 임천순의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효율화 방안](1992)과, 장명희의 [고등학교 가정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연구](1994) 등이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의상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 40년 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복식산업의 시장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산업체의 노동·기술의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가사·실업계열 의상과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5차·6차 교육과정의 의하여 교육을 받은 가사·실업계열 의상과 학생들의 의상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교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의상과 교육 과정 개편 및 현장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의상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 교육의 성격 및 필요성

우리 나라 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실업교육은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실업계 대학 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업계 학과 및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의 고등학교나 대학이 농업, 수산업, 공업, 상업, 가정, 기타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학생에게 습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이무근, 1984).

직업 교육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직업 학교에서 시행되는 직업에 대비하는 교육을 말하며, 예컨대 대학 수준에서의 직업을 대비하는 교육 즉, 보다 전문화된 수준의 직업 대비 교육은 실업 교육의 범주에는 넣어도 직업 교육이라 하지 않는다(김종철, 1990).

또한 직업 교육이란 개인이 학사학위 미만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 신체적 특성, 가치관 등에 알맞은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해, 판단력,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거나 또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자신의 일을 개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사회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전체 교육의 일부이다(이무근, 1984).

따라서 직업 교육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는 농, 공, 상, 수산, 해양, 가정 분야의 산업 등과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직업을 준비시키는 실업교육의 부분으로 교육하는 학교 수준의 범위가 고등학교로 한정된다.

직업 교육의 개념을 학교 교육 차원에 제한하여 볼 때, 이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교육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양열모, 1990).

최근 김정일은 [개인 적성 살리는 전문직업인 양성의 특성화 고교](2002)에서 일반교육과 직업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발전은 물론 현대의 기술 변화 속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직업교육과 졸업 후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는 계속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 및 교육 목표를 21세기의 삶을 살아갈 자기 주도 능력을 가진 인간상 구현에 중점을 두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기초 직업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향상과 계속 교육의 욕구증가로 인해 관련 분야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 학생들의 진학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직업 및 산업 세계의 변화는 물론 미래 사회와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과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교과 내용의 조절 및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질은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적 교육개혁에 발맞추어 실제적인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실업계 직업교육과 관련된 가사·실업계 직업 교육에 관한 필요성이 강조된다.

2. 실업계 의상과 교육의 성격 및 필요성

초등학교 실과, 중·고등학교 실업·가정 교과에 포함되어 온 의생활 교육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을 통하여 복식산업에 종사할 중견 기능인을 기르는 직업 교육적 성격을 지니며, 다양한 내용 구성으로 타 교과에 비해 복식산업의 직업 세계에 대한 안내의 기회와 경험을 보다 풍부하고 광범위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진로 교육으로서의 의의가 크다(이인희, 이옥임, 1994).

의상과 교육은 교양 교육을 바탕으로 진로 교육과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복식산업의 발달에 대응하여 직업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어 선진국형 산업 구조 모습을 갖추면서 고용 및 취업구조, 사업별 취업자 구성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 21세기는 고도의 산업 사회로서 변화와 발전은 직업 세계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며, 지식 기반 산업과 첨단산업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정보산업, 신소재 등, 첨단 산업과 감성 지향적인 산업들이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구조는 점차 다양한 서비스직의 증가, 사무직

과 생산직을 연결하는 중간 전문 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키며, 지식을 갖춘 다기능 다기능 인력의 요구가 예측된다.

특히 복식산업은 다양화·고급화 되면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 나서는 능동적 구매 활동으로 국내 브랜드가 다양해졌으며, 유통 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브랜드의 유입,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다양한 패션 정보, 해외 여행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들은 폭넓은 브랜드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패션업자들은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위치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기에 제공해 주어야 하는 위치로 변화되었다. 또한, 경제적 구조, 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레저용, 스포츠용, 직장용, 사교용 등으로 점차 다양화, 개성화 되고 있다(백영자, 1991).

패션산업은 과거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컴퓨터의 도입으로 제도, 재단, 봉제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되었으며, 이 변화는 직물디자인, 의류제조 및 생산관리, 액세서리, 판매 등의 분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디자이너의 양성뿐 아니라 텍스타일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머천다이지, 스타일리스트, 패턴너, 컬러리스트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는 우리나라 패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신규 인력에 대한 전문화, 다양한 교육과 이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체와 학교간의 연계가 강조된다. 이처럼 복식 산업의 발달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의류업계에 종사할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실업계 의상과 교육은 전문 지식에 관한 교육,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의 적응 능력, 패션 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의상과 선택, 의상과 교육, 그리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 1) 의상과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며 선택 할 때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 2) 의상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표 1〉 의상과 선택 이유와 선택할 때 영향을 받은 사람

변수		년도	1995년	2001년
의상과 선택 이유빈도(%)	적성		131(28.6)	130(58.6)
	중학내신		202(44.1)	10(4.5)
	취업		16(3.5)	10(4.5)
	진학		78(17)	43(19.4)
	주위권고		31(6.77)	29(13.1)
	합계		458(100)	222(100)
의상과 선택시 영향을 받은 사람 빈도(%)	선생님		101(21.9)	43(19.4)
	부모님		32(6.9)	8(3.6)
	실업계고교선배		20(4.3)	7(3.2)
	본인의결정		309(66.9)	164(73.8)
	합계		462(100)	222(100)

* 결손값은 제외하였음

만족과 불만족 이유는 무엇인가?

3) 의상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불만족 이유는 무엇인가?

4) 의상과 교육 내용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5)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2. 설문지 구성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임춘순, 1992)과 한국교원대학교(장명희, 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참고로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의 검토를 거쳐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의상과 선택, 의상과 교육, 졸업 후 진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만족도와 필요도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할 내 실업계 고등학교 중 의상과가 설치되어 있는 신경여자실업고등학교와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의 의상과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5년에는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01년에는 11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462부와 222부를 회수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이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의상과 선택

실업계 고교 의상과 학생이 의상과를 선택한 이유와 의상과를 선택할 때 영향을 받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의상과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1995년도에는 중학교 내신이 의상과 선택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나, 2001년도에는 적성으로 많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5년도 학생들은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실업계 의상과 진학을 선택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의상과 선택 이유 중 진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부모들의 의사와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대학이 동업계 지원 특별전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의상과를 선택할 때 영향을 받은 사람을 살펴보면 1995년과 2001년 모두에서 본인의 결정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의 의상과 진학 선택 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본인의 생각임을 알 수 있었다. 타인의

〈표 2〉 의상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

변수		년도	1995년	2001년	
		의상과 선택 만족도(평균)			
의상과 선택 만족 이유	적성때문		118(27.9)	57(43.2)	
	취업때문		3(0.7)	1(0.8)	
	기술습득		135(32.0)	46(34.8)	
	빈도 (%)	진학의 유리		133(31.5)	21(15.9)
		전문성		34(8.0)	7(5.3)
		합계		423(100)	132(100)
의상과 선택 불만족 이유	열등감		4(10.3)	0(0)	
	불평등		4(10.3)	15(16.7)	
	적성에 맞지 않음		16(41.0)	37(41.1)	
	빈도 (%)	수업운영능력부족		2(5.1)	30(33.3)
		시설부족		13(33.3)	8(8.9)
		합계		39(100)	90(100)
타과에 대한 관심도	정보처리과		16(3.5)	12(5.4)	
	상업과		9(1.7)	3(1.4)	
	관광과		30(6.5)	21(9.5)	
	상업디자인과		48(10.4)	16(7.2)	
	빈도 (%)	의상과		274(59.4)	136(61.3)
		유아교육과		84(18.2)	20(9.2)
		기타		0(0)	14(6.3)
		합계		461(100)	222(100)

* 결손값은 제외하였음

영향으로는 선생님들 통한 선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의상과 선택에 중학교의 진로 교육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타인의 영향 중에서는 부모의 영향이 높다고 한 장명희의 연구(1994)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진로 선택 시 본인의 결정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의상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1995년도에는 의상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3.848로 높게 나타났으나 2001년에는 2.405로 1995년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01년에는 의상과 선택 시 중학교의 내신 성적보다는 적성을 가장 고려해서 온 학생들이므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이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의상과 선택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1995년도에는 기술습득, 진학에 유리함, 적성에 맞음의 순으로 나타났고, 2001년에는 적성에 맞음, 기술습득, 진학에 유리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상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유치하고 기술습득을 늘리고 진학에 유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술습득에 대체로 높은 응답이 나타난 것은 실업교육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의상과 선택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살펴보면 1995년도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과 특성에 맞는 시설의 부족,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불평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2001년도에는 적성에 맞지 않음, 선생님의 수업 운영 능력부족,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불평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95년과 2001년 모두 적성에 맞지 않음이 가장 높은 불만족의 이

〈표 3〉 의상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수	년도		
	1995년	2001년	
만족도 (평균)	의상과 교육 만족도	2.741	2.795
	이론수업 만족도	3.010	2.836
	실습수업 만족도	2.949	2.709
의상과 교육 불만족 이유 빈도(%)	전반적교과내용부실	13(4.8)	7(14)
	전반적실습내용부실	28(10.4)	12(24)
	시설부족	104(38.7)	1(2)
	자료부족	19(7.0)	17(34)
	수업운영능력부족	105(39.0)	13(26)
	합계	269(100)	50(100)
이론수업 불만족 이유 빈도(%)	체계성 부족	29(14.4)	8(17.4)
	용어의 어려움	21(10.4)	11(23.9)
	이론시간 부족	9(4.5)	4(8.7)
	자료 부족	96(47.5)	16(34.8)
	수업운영능력 부족	47(23.3)	7(15.2)
	합계	311(100)	46(100)
실습수업 불만족 이유 빈도(%)	실습시범 부족	42(18.1)	8(21.6)
	이론설명 부족	31(13.4)	7(18.9)
	실습시간 부족	40(27.3)	11(29.7)
	참고자료 부족	39(16.8)	5(13.5)
	수업운영 부족	80(34.5)	6(16.2)
	합계	232(100)	37(100)

* 결손값은 제외하였음

유로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의상과를 선택할 때 과의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해석되며 중학교의 진로 교육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1995년 학생들의 불만이었던 시설부족은 교육부의 지속적인 실업교육의 시설 확충으로 2001년에는 불만이 많이 해소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교사들이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업운영에 불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재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선호하는 과를 알아보기 위해 타 과로의 전학 의사를 살펴본 결과 1995년도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도 의상과 재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상과 선택 시 적성을 가장 많이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의상과 교육

의상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의상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1995년과 2001년 모두 낮게 나타나 의상과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상과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1995년도에는 선생님의 수업운영 능력 부족과 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의상 전공자가 아닌 교사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상관련의 재교육도 없이 수업을 맡는 데서 오는 학생들의 불만으로 볼 수 있다. 2001년도에는 자료부족, 선생님의 수업운영 능력 부족, 전반적인 실습 내용 부실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공과목수업을 받으면서 전공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실습내용의 자

료 부실로 해석되며, 수업운영 능력 부족은 여전히 교사들의 재교육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론수업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살펴보면 1995년과 2001년 모두 다양한 자료의 부족이 주원인으로 나타나 이론 수업에 있어 학생들이 전공용어를 이해하거나 전공 수업을 받기 위한 다양한 자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실습수업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수업운영능력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실습시간 부족, 실습시범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는 실습시간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실습시범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2001년에는 교사들의 실습수업 능력이 많이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습 수업 불만족의 이유가 실습시간의 부족이므로 실습 수업시간의 증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상과 교육에 있어 전공 수업,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전공과목, 현장실습교육, 의상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의상과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변수		년도	1995년	2001년
전공 수업에 대한 의견 빈도(%)	이론수업감소		18(3.89)	4(1.8)
	실습수업감소		21(4.55)	7(3.2)
	현재수업적당		137(29.65)	72(32.4)
	이론수업증가		55(11.9)	15(6.8)
	실습수업증가		231(50.0)	124(55.9)
	합계		462(100)	222(100)
개설을 희망하는 전공과목 빈도(%)	입재재단		0(0)	30(24.2)
	텍스타일		160(35.6)	14(11.3)
	코디네이션		86(18.8)	48(38.7)
	일러스트		0(0)	22(17.7)
	CAD		173(37.8)	9(7.3)
	기타		39(8.5)	1(0.8)
	합계		458(100)	124(100)
현장실습 필요도(평균)			3.412	4.249
현장실습 시기 빈도(%)	매년방학		72(15.7)	27(12.2)
	2/1이후		93(20.2)	30(13.5)
	2/2이후		140(35)	63(28.4)
	3/1이후		98(23.3)	81(36.5)
	3/2이후		50(10.9)	21(9.5)
	합계		453(100)	222(100)
현장실습 기간 빈도(%)	1개월 이내		58(12.7)	56(25.2)
	2-3개월		223(48.7)	111(50.0)
	4-5개월		88(19.2)	32(14.4)
	6개월		49(10.7)	14(6.3)
	6개월 이상		40(8.7)	9(4.1)
	합계		458(100)	222(100)
의상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의견 빈도(%)	직업교육		297(64.6)	143(64.4)
	가정관리자 육성		23(5.0)	4(1.8)
	직업교육/가정관리자 육성		131(28.5)	70(31.5)
	기타		9(2.0)	5(2.3)
	합계		460(100)	222(100)

* 결손값은 제외하였음

전공수업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본 결과 1995년과 마찬가지로 2001년에도 50%이상의 학생들이 실습수업의 증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수업에 대한 의견에서 실습수업의 증가 요구는 더욱 다양한 전문 교과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롭게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과목을 조사해 본 결과 1995년도에는 CAD가 37.8%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텍스타일, 코디네이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코디네이션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입체재단, 일러스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1995년 당시 컴퓨터 교육에 대한 요구 및 전망이 학생들로 하여금 CAD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2001년에는 각종 매스컴의 영향으로 코디네이션이 새로운 직업의 하나로 부각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장실습 교육에 대해 살펴본 결과 1995년 보다 2001년도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며,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시기는 3학년 1학기 이후나 2학년 2학기 이후가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현장실습 기간에 대해서는 2-3개월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의상과 교육을 직업

교육으로 받아들여 현장실습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경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 이론과 실습의 접목이라는 차원에서 산학협동의 필요성을 요구하지만 산업체의 협조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 현장실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상과 교육에 대하여 학생은 어떤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1995년과 2001년 모두 의상과 교육의 성격을 의상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교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업교육과 가정관리자육성, 가정관리자 육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복식산업계 관련 직업인력 육성이란 의상과 직업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 달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의견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995년, 2001년 모두 약 60%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표 5>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의견

변수	년도	1995년	2001년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의견 빈도(%)	졸업 후 진학	278(60.6)
졸업 후 취업		103(22.4)	34(15.3)
미결정		78(17.0)	53(23.9)
합계		459(100)	222(100)
취업 희망 분야 빈도(%)	전공분야	351(76.6)	181(81.5)
	사무직	34(7.4)	19(8.6)
	자영업	28(6.12)	10(4.5)
	무조건취업	19(4.2)	4(1.8)
	취업 안 함	26(5.7)	8(3.6)
	합계	458(100)	222(100)
선호 직종 빈도(%)	생산직	3(0.7)	12(5.4)
	판매직	11(2.4)	15(6.8)
	사무직	40(9.3)	7(3.2)
	점사직	53(11.7)	3(1.4)
	디자인실	321(70.7)	167(75.2)
	홈패션	26(5.7)	18(8.1)
	합계	454(100)	222(100)

* 결손값은 제외하였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학 진학을 선호하며 실업계 동일계 진학으로 대학 진학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 대부분이 전공관련 분야에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실 근무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홈페이지, 판매직, 생산직 등에의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5차와 6차 교육과정을 받은 서울지역 실업계 의상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상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상과 선택에 있어 1995년 보다 2001년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여 선택하였으며 타인의 영향 중 중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상과 선택의 불만족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한 과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중학교의 진로·직업교육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의상과 교육에 대한 만족은 1995년과 2001년 모두 낮게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 5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수업운영 능력 부족, 시설 부족을, 6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자료 부족, 선생님의 수업운영 능력 부족을 들었다. 이는 교육부에서 지속적인 실업교육의 시설확충으로 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은 해소되었지만 교사들의 재교육의 필요성과 전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자료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시사한다.

셋째, 의상과 교육 내용에 있어 학생 대부분이 실습수업의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CAD, 텍스타일 과목을, 2001년에는 코디네이션, 입체재단의 과목 신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로 교과내용의 조절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학생들은 의상과 교육이 의상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교육으로 인식하고 현장실습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제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학생 대부분이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선호하며 취업을 할 때는 전공관

련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향상과 계속 교육의 욕구증가로 보이며 현재 대학 진학이 동일계 지원으로 계속 교육의 기회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의 실업교육의 성격이 기초 직업인을 양성하여 관련 산업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계속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업계 고교 의상과 교육의 실제적인 변화가 다음과 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첫째, 산업 구조적 변화와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 과정의 개설 및 내용을 조절하여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 동기 유발을 극대화시켜 지식활용 능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둘째, 현실적인 현장실습의 기회를 마련하여 산업 현장에 밀착된 직업 교육체제를 통해 현장 적응력이 높은 기초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정연구처 (1990). 한국 교육 교육과정의 변천. 대학교과서, 135.
- 김신복 (1995). 산업기술 교육의 발전과제. 교육월보, 통권167호, 35~37.
- 김영주 (1990). 실업가정·체계 및 직업 과정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 연구원.
- 김중철 (1990). 한국교육정책. 서울교육과학사, 242~265.
- 김정일 (2002). 개인 적성 살리는 전문직업인 양성의 특성화 고교. 교육월보, 통권 239호.
- 백영자 (1991). 복식산업. 한국방송통신대학, 4~84.
- 서울경제신문 (1993). 9.20.
- 양연모 (1990). 산업교육의 시대적 필요성. 새교육 4월호, 113~114.
- 이무근 (1984). 직업교육학원론. 서울교육과학사, 22.
- 이인희·이옥임 (1994). 가정과 교수법. 수학사, 14~15.
- 임천순외 2인 (1992).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효율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장명희 (1994). 고등학교 가정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원.
- www.cned.or.kr, 실업교육